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4월 ~ 5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중국, GB, 수입, 식품, 규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중국, GB, 수입, 식품, 규제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7. 01. 17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입 식품상들을 대상으로
GB 변경 주의

2017. 04. 29
무(無)GB 식품에 대해
국가 GB 변경
주의 발표

2017. 05. 17
무(無)GB 식품
검사 규범은?

핵심이슈
도출

중국, 무(無)GB 식품 수입 시 적용되는 국가 심사 표준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중국, 무(無) GB 식품 수입 시 적용되는 국가 심사 표준 발표

2017년 6월 1일,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国家食品安全风险评估中心, 이하 CFSA)가 무(無) GB 식품에 대한 국가 심사 표준을 밝혔다. 무(無) GB 식품이란, 해외 제조사가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GB 규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으로, 중국이 규제하는 강제성을 띤 규범 체계인 GB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CFSA의 발표에서는 미생물, 오염물질, 잔류농약, 영양 강화제 기준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GB 2761, GB 2762, GB 2763, GB 29921, GB 2760, GB 14880, GB 7718, GB 28050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무(無) GB 식품에 대한 표준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입 제품 통관 검역 시 해당 제품이 무(無) GB 제품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입상이 제출한 국외 기준(제품 제조국의 심사 기준)을 심사하고 해당 기준이 적합한지 판단한다.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준을 임시 국외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만약, 국외 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중국 국가표준총국에서 신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이때, 중국 식품 안전 기준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기술 검사 신청서 2. 해외 생산 경영 허가 증명서 3. 생산 국가 식품 관련 표준 법규 또는 국제 기준 4. 제품 성분표, 규격, 제조 설명서 5. 제품 이미지, 생산국 시장의 라벨 이미지, 중국 시장에서 사용할 예정의 라벨 이미지 6. 샘플 1개 혹은 30g 분량의 샘플이 이에 해당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중국 GB는 통일된 기준으로 국가가 직접 제정한 것으로, 중국 전역에서 준수해야 할 기술적 요구를 뜻한다. GB는 크게 강제성 표준과 추천성 표준으로 나눌 수 있다. 강제성 표준은 기술적 법규에 속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며, 추천성 표준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나, 기 적용된 추천성 표준에 대해서는 수정을 거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을 뜻한다. 이렇듯 GB는 강제성을 띄고 있어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식품 안전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한국 식품 통관 시 가장 거부 빈도가 높은 사유가 식품 첨가물 부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 전에 식품 첨가물 GB 유무와 GB 내 첨가물 기준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無) GB 식품 수입 시 적용되는 국가 심사 표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www.cfsa.net.cn/Article/News.aspx?id=94DD0513DF90F0DFF542712ED8172ABE9798BA6CAC06EF3B>

1. 进口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食品要注意啦!, 食品资讯中心, 2017.4.29
2. 关于进口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食品相关标准技术审查工作的通知, 国家食品安全风险评估中心, 2017.6.1